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일본에서의 수용과 전개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커뮤니티 협동조합, Worker's Buy Out에 대한 일본측의 실천적 관심~

8월23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지역협동조합,
워커즈바이아웃 등 사회적배제와
이탈리아 중산간지역 지역재생을 연구

2013년부터 27년간의 고용노동에서 벗어나
나가노현에서 농원(VENTO E TERRA = 바람과
대지)을 경영

대학의 정규직을 명예퇴직하고 강사로 활동

타나카 나쓰코



이야기의 구성



1 일본의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 경과

- ① 워커즈·코프...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 의한 운동
- ② 워커즈·콜렉티브... 생협을 지원해온 여성들의 지역운동
- ③ 공동련(共同連)...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 노동의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

2 2009년의 한편의 영화「Si puo fare」의 「그 후」 Cooperative Noncello(논체로협동조합)

3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4 최근 동향으로서 「커뮤니티 협동조합」이란 발상

5 사회적 협동조합·커뮤니티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운동에 있어서 갖는 의미의 중요성

6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의 양적 영향력~협동조합에 의한 사업조직의 재생 워커즈 바이 아웃

7 정리

- ① 보완성 원리의 참된 의미
- ② 시민주체 사업을 지지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료 이탈리아 지도

—자료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광의·협의)과 사회적 협동조합

1 일본의 이탈리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

① 워커즈 코프

단체명	활동담당자, 경과 등
워커즈 코프	<p>·실업대책사업중단(1971)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그 존속을 지역사회에 호소하는 가운데 발족. 1979년 지자체로부터의 업무를 수탁, 노동자집단이 그것을 담당하는 사업조직이 일본각지에서 전개. 전국협의회로서 결속</p> <p>·「고용되지 않는 노동방식」=노동자들이 출자·경영·운명을 담당하는「노동자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이탈리아 노동자 협동조합 연구로 발전함</p> <p>·「고용되지 않는 노동방식」→「협동노동=노동자상호·노동자와 이용자, 사업조직과 지역의 3가지 협동방식」(1990년대 후반~)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로 발전함</p> <p>·「동지와 연대해 사업을 일으키고, 협동해서 일함으로써 사람답게 생계를 유지하고(공조를 통한 자조)」, 「(사업)잉여를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합원의 의사(공익의 관여)의 실현」(2009)</p> <p>·「사회연대경영」(2004)「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지역시민이 당사자·주체자로서 지역의 당면과제에 관여하여 연대하며 지역재생에 참여한다」 이탈리아의 커뮤니티 협동조합연구로 발전함(2010년대)</p> <p>·지역의 고용문제나 협동노동의 법제화 운동에 있어서 이탈리아의 워커즈 바이 아웃에 대한 관심도 생겨남(2016~)</p> <p>※취로조합원 약13000명, 총사업액 약332억엔(2015년도) 육아(방과후 아동돌봄), 병원·복지시설 등 건물관리, 커뮤니티센터·지구센터 등 운영관리,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청년·생활곤궁자 지원, 배식, 재활용사업 등</p>

1 일본의 이탈리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

② 워커즈 콜렉티브



단체명	활동의 담당자, 경과 등
워커즈 콜렉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적인 협동조합운동 가운데에서 제창된 「협동조합에 의한 지역만들기」(1980)를 생협운동진영이 방침화· 1982년 생활클럽생협의 사업거점에서 「닌진」발족(생협업무 하청, 주문도시락). 연합회로서 전국네트워크· 「또 하나의 노동 방식」→「커뮤니티 워크」(1995~)협동조합정신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등한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자기결정을 하고 책임을 갖는 협동노동 →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특히 B형)에 관심· 노동자의 협동조합으로서 인간적,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열린 노동의 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창출된 가치」를 공유하는 →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형을 그린 「위캔두뎃」상영 운동·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일하는」업무 문화의 개척·실천 <p>※ 405(WNU관련)단체: 취로조합원 약9877명, 총출자액 약4억8000만엔, 총사업액 약140억만엔 (2015) 사업내용 ... 주문도시락, 배식, 가사원조·간병서비스, 보육, 학생보육, 아동 발달치료, 건강체조지도, 침구, 약국, 장의사, 사무업무수탁, 재활용, 편집, 조사, 배송, 시설관리 등</p>

1 일본의 이탈리아협동조합에 대한 관심

③공동련(共同連)

단체명	활동 담당자, 경과 등
공동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1970년대 초~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일자리 만들기가 각지에서 진행됨·「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일하고」「장애인의 노동권 확립」을 목적으로 1984년 10월, 「차별에 맞서는 공동체 전국연합」(공동련) 설립·2001년 이탈리아(사르데냐州)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청년리더인 프란체스코 산나氏를 전국대회에 초대. 그 후, 2002년, 2003년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교류를 거듭함·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고방식 중, 특히 「장애를 가진 노동자의 비율이 30%이상」「장애인,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약물·알콜중독·전과자, 불우한 환경의 미성년자 등, 폭넓은 사회적 장애를 지칭한다」「자원봉사 조합원 등도 포함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등한 조합원」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이러한 발상을 도입해 사회적 사업을 선언(2009년)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과의 연대에 의해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의「사회적 사업소」만들기」를 제창하고, 법제화를 위해 노력·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형인「위캔두뎃」상영운동·日韓사회적기업 세미나 개최 <p>*사업내용...빵, 쿠키, 두부, 식당, 카페, 자연식, 유기농업, 인쇄, 청소, 재활용품숍, 간병서비스</p>

이탈리아 지도



표시가
이제까지
제가 조사한
지역입니다



2 2009년의 그 영화「위캔두뎃」

(후에 「인생 여기에 있다」로 변경)



영화의 모델이 된 실제
협동조합 Cooperative
Noncello (논체로협동조합)

◆포르데노네시
(이탈리아북동부, 인구51000명)
의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청소·건물관리
협동조합을 1981년 설립

◆배제되고, 박탈과 실업에
처해있던 사람들과 함께
배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

2 최근의 논체로협동조합

● 최신 뉴스

(논체로협동조합 월간지 2016.12호)를 보면

“Si può Fare” (위캔두멧) = 「할 수 있다!」

⇒ “Si può **ancora** Fare” (여전히 할 수 있다)



● 속편 서적 출판 2016.11

사업영역(전반)

정원·수목관리(거목벌채)
공공장소(옥외) 청소
공원의 놀이기구 등 설치
환경재생
도로건설, 광장·휴게소 설치
폐기물처리
묘지청소·관리
배송·물류
수위·경비업무
등하교 도우미
병원 통원 도우미
식당·바 운영·배식

주로 B형의 영역

자연재배 채소판매
화훼 재배·판매
가구수리
인테리어

논체로협동조합의 매출, 멤버 구성 등

2007년「사회적 대차대조표」로 부터
매출

12.659.096유로(약15억1900만엔)

1유로 = 약120엔

인건비 지출(1명당 약176만엔)

10.115.165유로(약12억1400만엔)

조합원 구성

조합원노동자	588명
비조합원노동자	101명
자원봉사자 조합원	19명
협력자	2명
조합원율	83%
합계	710명

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한 인원
227명(32.9%)

2014년「사회적 대차대조표」로 부터
매출

11.049.398유로

노동분배율 : 82%

인건비 지출(1명당 약180만엔)

9.060.506유로(약10억8700만엔)

조합원구성

조합원노동자	530명
비조합원노동자	75명
조합원율	87.6%
합계	605명

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한 인원
185명(30.6%)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1)개요 법률381호(1991)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특징을 파악한다



- 이탈리아: 생협, 농협, 수협, 노동·생산협동조합 등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
- 주로 복지, 문화, 환경, 교육, 정보, 농업, 공예 등의 분야에서 사업활동을 전개. 현재 전국에 약 13000단체
- 협동조합의 한 유형으로 제도화된 것은 1991년이지만, 그 전신이 되는 활동은 1970년대부터 각지에서 싹틔음
- 2000년에는 사회복지기본법에 있어 사회정책상 중요한 위치로 규정
「제5조(제3섹터의 역할) 1. 보완성의 원리 실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행정의 투명화, 간소화와 함께 제공된 서비스의 질과 특징, 그리고 자격을 고려한 분석, 검증을 활용하면서 제3섹터에 있어서의 활동자가 독자적인 프로젝트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법제상, 교섭상의 조력에 이바지하기 위한 행위를 촉진」(국가의 책무)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2)제도의 특징-①보편적 이익과 사업내용

- 제도화의 목적「사회적협동조합은 시민의 인간으로서의 발달 및 사회참가에 대한 지역의 보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법률381호 (1991년)제1조)

→(다나카)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발달과 참여」를 위한「지역의 보편적인 이익」이란 교육, 복지, 보건, 환경, 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영역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구성원(종사 조합원, 이익 조합원, 비조합원 종사자 등)의 공익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 활동하는 지역사회 공공적 이익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임

- 「공공적 이익」창출 방법으로서 2종의 활동

A형)사회복지, 보건, 교육서비스 운영

B형)「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자의 노동참여를 목적으로 한 농업, 제조업, 상업 및 서비스 등의 다양한 활동」 하나의 사업체가 A와 B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유형	A형 %	B형 %	A+B %	콘소시엄 %	합계 단체수
2001	59.1	33.1	4.2	3.6	5,515
2005	50.0	32.9	4.3	3.9	7,363
2011	60.7	30.8	4.9	3.6	11,264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2) 제도의 특징 - ② 노동을 통한 참여

- B형의 경우,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보수노동자의 **30%이하는 불가함**
- 또한 동시에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는) 그 주체적인 지위를 양립시키기 위해서 당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 **참여가 양과 질에 있어서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규정(동법 제4조제2항) → 단순한 「고용창출」이나 「훈련사업」에 그치지 않는 당사자 주권을 지향
-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란 「노동시장으로의 참여가 어려운 사람(청년층, 이민, 혼자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 등), 각종 장애(지적장애, 신체장애, 지각장애, 정신장애)를 갖는 자, 언어적·문화적 소수자, 고실업 지역의 여성, 장기실업자(과거16개월 중 12개월의 실업 등), 전과자 등인데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와의 연계로 상당히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음

3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2)-③ 컨소시엄의 활용

- 사회적 협동조합은 하나 하나의 조직규모가 소규모(조합원수 20명 미만)이 60.9%를 차지한다)
 - 이러한 소규모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의 형성을 촉진(동법 제8조)
- **지역별** 컨소시엄, **사업영역별** 컨소시엄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하나, 80%가 20단체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위 협동조합의 규모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조직으로서도 일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컨소시엄 결성에 있어서는 **구성 조직의 70%이상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영리조직이 비영리조직을 이용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함

4 최근 동향으로서 「커뮤니티 협동조합」 이라는 발상과 착안



◆ 최근의 동향으로서... 「커뮤니티 협동조합」의 탄생

- **EU의 움직임** 유럽위원회에 의한 「리스본 전략」이후의 전략 제기 「유럽2020」(2010) → 리스본의 3대 중점 시책, 「**성장·고용·사회적 결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추가 ⇒ 지역복지, 환경, 사회정책(고용) 연계
- 이탈리아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커뮤니티 협동조합**」이 모색되기 시작해, 특히 2011~2012년에 걸쳐 재정난을 겪었던 **소규모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실천과 제도마련의 기운이 고양됨



특히 남부 이탈리아에서 고용문제와 지역에 필수불가결한 사회서비스 담당자를 연계하고 시민사업조직을 지자체가 관여해 설립하는 사례 속출

4 최근 동향으로서 「커뮤니티 협동조합」에 착안

(1) 커뮤니티 협동조합을 출범하는 소규모 지자체의 도전

소규모 지자체의 에너지사업 동향

「이 마을이 협동조합으로 태양광 발전에 착수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의의가 있다. 하나는 발전시설의 설치나 유지보수를 비롯해 전력을 활용한 시설 등으로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복지서비스나 공공교통 등, 작은 지자체에서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이다. 이것은 또, **지역운영에 시민이 주인공으로서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멜피그나뇨시(플리아주)이반 스토메오(Stomeo)시장
<http://www.vita.it/it/article/2015/07/31/melpignano-storia-della-cooperativa-perfetta/136144/>

재생 에너지에 착수하는 협동조합의 창출이 주민참여를 동반한 소규모 지자체의 운영에 있어 유효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커뮤니티 협동조합을 제창**

4 최근 동향으로서 「커뮤니티 협동조합」에 착안

(2) 커뮤니티 협동조합을 지지하는 구조

○이탈리아 협동조합연합회인 **레가코프**+이탈리아의 소규모 지자체(인구5000명 미만)가 구성하는 연합조직 **BAI(Borghi Autentici d'Italia)**, **전국환경보존단체**, **목공가구 장인조합**이 「공통의 목표」를 향한 협력을 함의

레가코프

「청년층의 일자리창출과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구체화, 지역에 정착한 일자리 재생, (사회적) 관광 및 환경보전의 면에서의 의미부여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커뮤니티 협동조합」의 창출을 추진하는」
2010년 총회

BAI

「청년 및 고령자를 비롯해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각적이며 자기결정에 따른 지역발전의 바람직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행하는 목적 아래 레가코프와 협동한다」

↑ ↓
이탈리아 공업연맹
(Confindustria) 산하의
전국목공가구협회
(Federlegnoarredo)

↑ ↓
환경보전운동단체
레감비엔테
(Legambiente)

4 최근 동향으로서「커뮤니티 협동조합」에 착안

(3) 사고방식의 특징(타나카 정리)

- 「커뮤니티 협동조합」의 새로운 법인격의 설립을 촉구하는 것은 아님
법인격을 불문하고,「지역에 깊이 관여하기」(바람직한 일자리 정의의 일환)
위한 정체성
- 기존의 협동조합이 사업영역을 넘어 지역을 축으로 횡으로 이어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의미하는(「커뮤니티에 대한 공헌」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동조합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
- 농산어촌부의 소규모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주민자치의 확충」과 바람직한 생활과 일을 창출·유지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커뮤니티 협동조합」의 개념화

일본 측의 관심사이기도 한 지역주민의 공감과 사업참여
촉진의 단계 (지역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구조)
⇒ 사업담당자일 뿐 아니라, 서비스이용 담당자의 연대 필요
다중이해관계자 조직(이용자·제공자의 참여)으로서 구상

5 사회적협동조합·커뮤니티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운동에 있어서 갖는 의미의 중요성

● 이탈리아·테르쯔셋트레(비영리)+협동조합



→ 사회적·연대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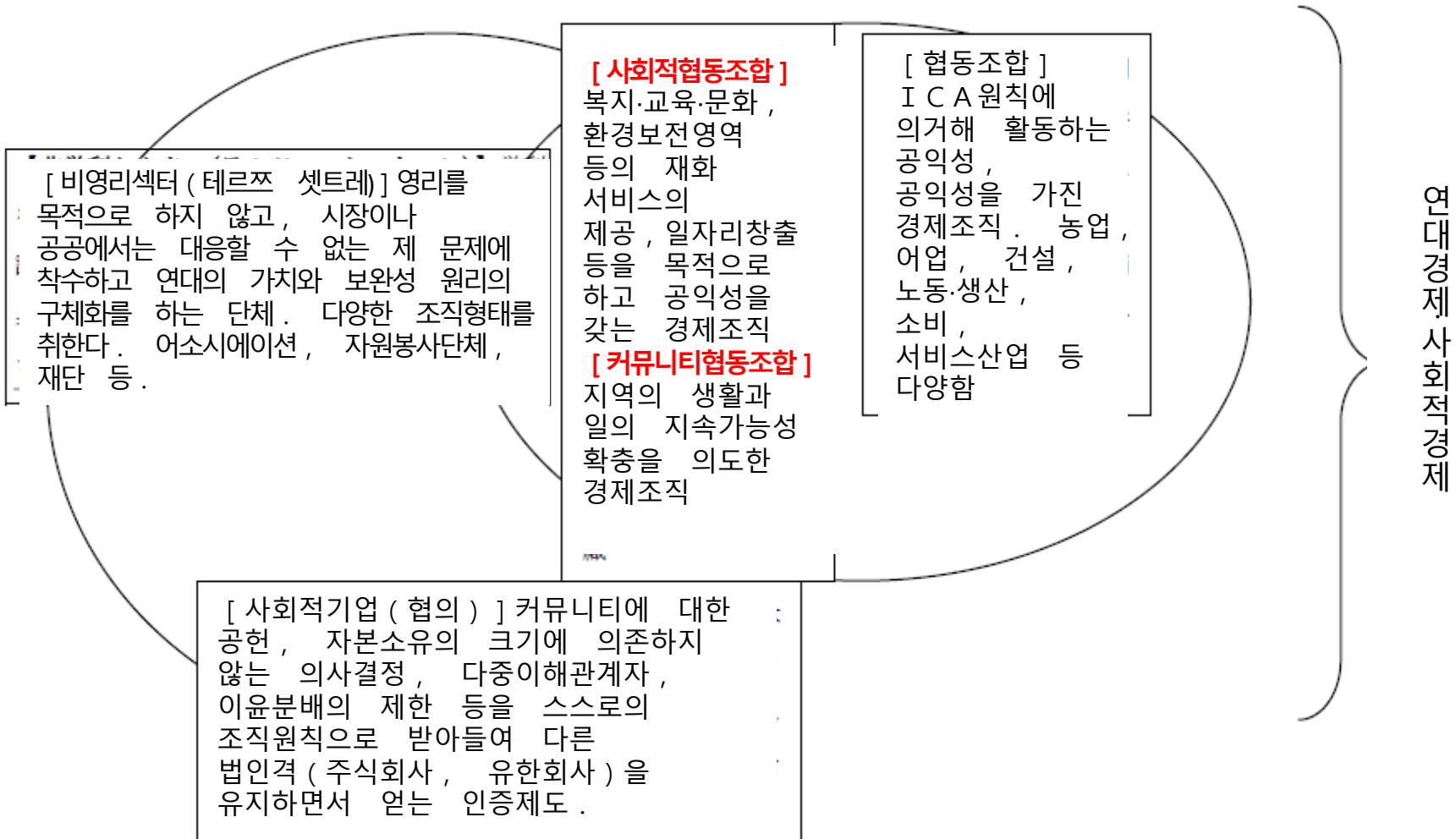
- 공공적 이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에 의한 비영리활동 → 「테르쯔셋트레」
- 각종 Association (결사체=시민에 의해 자주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총칭), 자원봉사단체, NGO, 종교계(非카톨릭을 포함) 자선단체, 복지사업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유한회사나 주식회사도 포함)
- 각각의 출자를 존중하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 「사회적·연대경제」로서의 발언력을 강화

● 사회적 경제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때 「비영리」 「협동조합」 두 가지 영역을 연결하는 역할

- **사회적협동조합**... 공익(共 益)과 공익(公益), 당사자와 지원자, 시민 등 다른 이해관계와 상호의 **대화를 이끌어 내는 장**으로서 기능
- **커뮤니티 협동조합**... 일자리 창출과 생활의 보전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지역의 보편적 이익을 구체화**하는 장으로서 기능

협동조합, 비영리 섹터, 사회적 기업의 관계도

이탈리아 비영리섹터와 협동조합 섹터, 사회적기업의 관계도



6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의 양적 영향력과 워커즈 바이 아웃

- 비영리섹터 및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의 양적 규모는 노동자수(고용노동자, 출자조합원 노동자)에게는 전 노동자의 7%를 넘는 수준
- 매출액은 GDP대비 약 11%
- 금융위기 때인 2009년부터 2010년의 사업형태별 노동자수의 변화율
 - 개인기업, 주식회사, 합명회사 등은 모두 마이너스.
 - 이탈리아 전국평균에서는 1.2%감소
 - 협동조합 전체에서는 2.7%의 플러스 → 고용면의 내구력이 높다

예. 워커즈 바이 아웃의 확산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노동자가 그 사업체를 매수하여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재구축해, 노동자들이 경영자가 되어 기업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직장·일자리를 유지

출전 lega informazioni (2017년1월9일 호)



6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의 양적 영향력과 워커즈바이아웃

② 일본에 대한 시사점

1 노동조합의 역할의 중대함

사업전환이나 경영의 방식은 협동조합이나 펀드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노동자와 협동조합을 중개하는 것은 노동조합** → 노동자에게 있어 WBO가 선택지가 되기 위해 필수

2 「새로운 사회적 단결의 주인공이 된다는 체험」의 지역적 공유

WBO가 단순히 소유자·경영자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거래업자, 고객, 원재료 공급자로부터도 이해를 구한 후 기업재생에 착수한다 →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

3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친 WBO를 지탱하는 제도의 존재

실업에 의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사회적 완충장치」)과 사업자금형성의 연계를 강화. **지원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한편, 경제면 뿐 아니라 반주형(伴走型) 지원**

4 자금조달 회로의 다양화와 강화

협동조합설립·운영에 있어 협동조합기금을 비롯해 자금조달의 회로가 다양하게 존재.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위해 3개의 국가센터가 상호신용보증 시스템을 구축



WBO를 둘러싼 협동조합, 지자체, 노동조합의 연계 → 일본 워커즈코프에 의한 관심

7 정리

①「보완성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한다



- 이탈리아에서는 협동조합 등을 지역(기초자치단체, 광역행정)에서의 사회정책의 입안, 설계, 실시의 담당자(사회복지기본법 법률328호에서 정규 규정)로 인식
- 법률328호「사회복지의 통합적 시스템 실현을 위한 법」(2000년); 사회복지 분야 서비스제공의 중요한 역할을 시민사회, 특히 비영리섹터가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단순히 서비스제공(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의「계획의 책정」과「조직화」에 참여시킴

→ **네트워크구축도 포함해 주요 담당자**로 규정

⇒ **보완성 원리**가 구체화되는 장으로서의「지역의 사회적 계획」



- 로마교황(피오XI)에 의한 반파시즘적 입장에 선 「회칙」(1931).
「.....하급단체가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직무를 이 단체로부터 빼앗아 보다 광역의 상급단체에 맡기는 것은 정의가 아니며, 동시에 그것은 사회질서에 매우 심대한 피해를 미치며 혼란을 초래한다」

출전 ; 유럽평의회「보완성의 원리의 정의와 한계」(초역)

스기하라야스오 외 편『충실한 지방자치를 추구하며~자료 현대지방자치』. 勁草書房, 2003, 178~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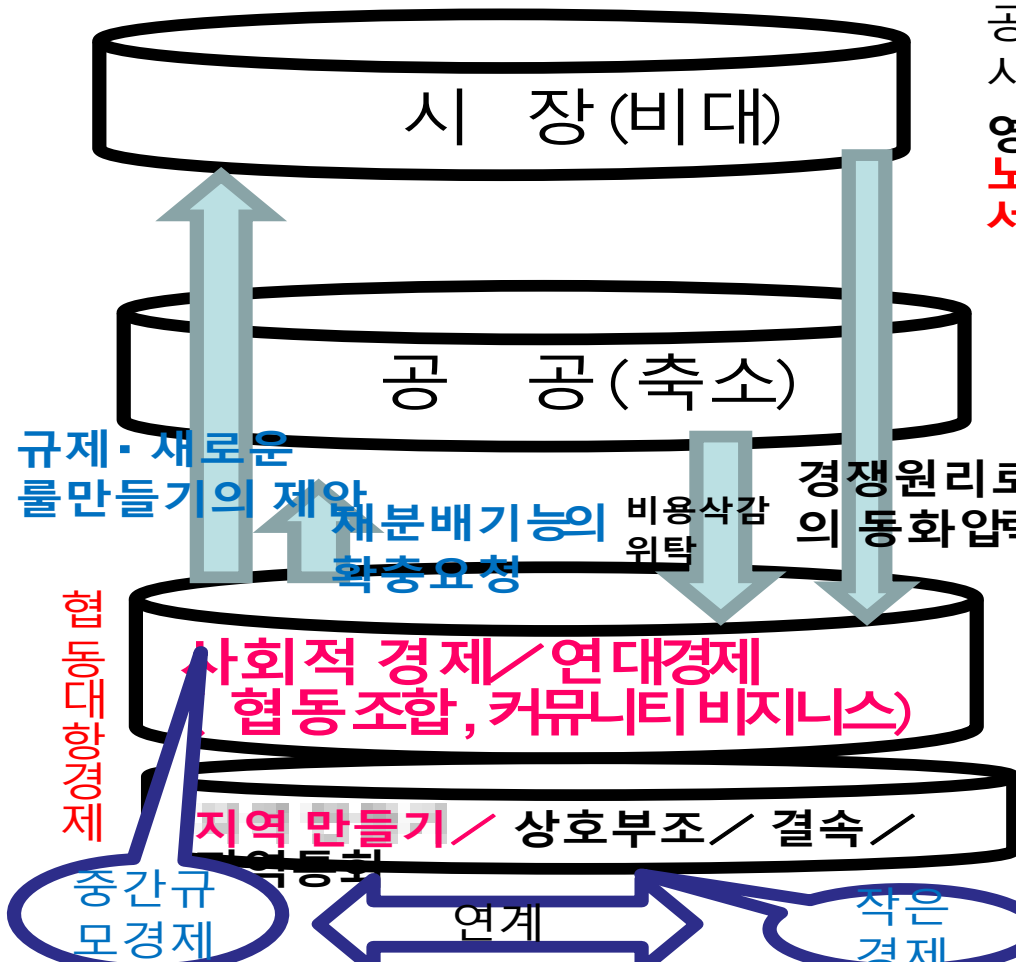
-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중간집단을 토대로 시민이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을 권장
- 중간집단과 시민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

= 시민에 의한 연대경제가 비용삭감을 위한 하청이 되지 않도록 제동을 건다는 생각

5 정리

②이탈리아로부터 배우다
 시민주체의 사업을 지하는 사회구조 구축을 위해

시민사업등, 사회적 경제론의사정(射程)



공공경제의 시장화, 생활세계의 시장화에 의해 비대화되는경향
영리 원칙 하에 decent가 아닌 노동방식· 당사자참여부재의 재화 서비스

시장경제에 의해서 발생한 격차를 시정하는기능이 줄어드는 경향

공공영역의 시장화의증가경향

경쟁원리로관제(官製)워킹푸어의 창출의 동화압력

공공경제 및 상호부조의 일부를 「연대경제」로서재구성하고 사업의 지속성을확보→법제화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노동방식

사회적 경제에 의해 공공·시장에 대한 규제적 추구 일부 연대경제화 / 그 밖에는 비시장: 투자적 의미의 언페이드워크

자료. 이탈리아의 사회적 연대경제(광의·협의)



Il numero stimato delle imprese sociali in Italia

	사업체수 Social enterprises 연대형·지원형	임금 노동자 Paid workers	자원봉사자 Volunteers	매출액 백만 Annual turnover (mln EUR)
Social co-ops (2011) 사회적협동조합 주로 연대형	11,264	365,006	42,368	11,157
Ex lege social enterprises (2013) 사회적기업 주로 지원형	535*	29,000*	2,700*	0,314*
Associations & Foundations (2011) 임의단체 등 연대·지원혼재	82,231	451,642	1,640,000	25,866
Total	94,030	845,648	1,685,068	37,337

Fonte: ISTAT Census (2011), *IRIS network (2014)

<http://www.vita.it/it/article/2016/10/27/impres-sociali-in-italia-sono-100mila/141377/>